싱가포르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3호

2021 싱가포르 스타트업 시장 동향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싱가포르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SINGAPORE

2021 년 03 호

구분 (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 이슈	▶ 2021 싱가포르 스타트업 시장 동향 1. 싱가포르 스타트업 시장 개요 2. 싱가포르 스타트업 업계 동향	창업 생태계 정부 지원 정책 핀테크 유니콘
심층 인터뷰	▶ 셀인올, 판매지원팀장 재키 파라스(Zaly Farras)	전자 상거래 마켓 플레이스 스타트업 문화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1.09.30.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심층 이슈

I. 2021년 싱가포르 스타트업 시장 동향

작성 순서

1. 싱가포르 스타트업 시장 개요
2. 싱가포르 스타트업 업계 동향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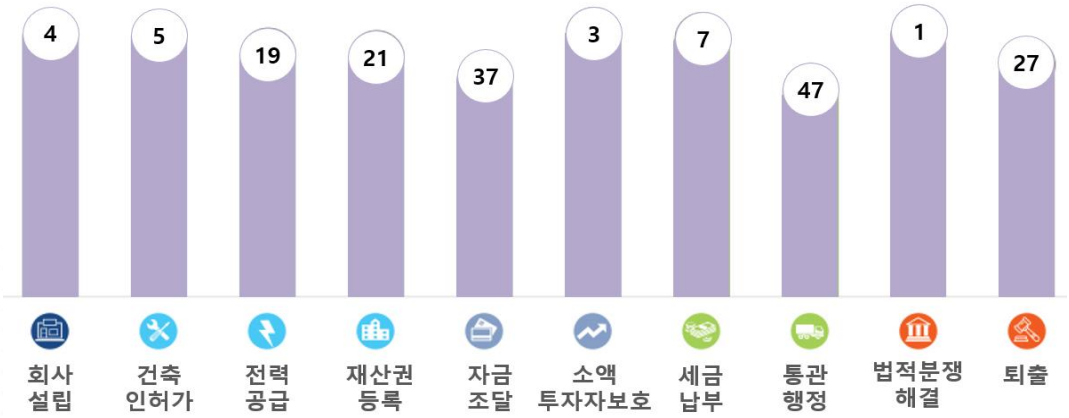
개요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지난해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에서 세계 2번째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좋은 나라로 선정됨. 또 기업 친화적인 법률 시스템, 직접적이고 다양한 정부 지원, 고도화된 인프라, 숙련된 인력 등을 갖춰 지난해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17위를 차지함.

싱가포르 정부는 2006년부터 'RIE Plan'을 통해 연구, 혁신, 개발 투자 정책을 펼치면서, 주요 창업 관련 기관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의 VC(벤처 캐피탈) 거래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는 중. 싱가포르에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사가 있으며, 그랩(Grab), 라자다(Lazada), 씨 그룹(SEA Group), 레이저(Razer), 트랙스(Trax), 팻스냅(Pat snap) 등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면서 아시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음.

1 싱가포르 스타트업 시장 개요

1. 스타트업 생태계

- 지난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기업 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싱가포르는 10 개 평가 대상 중 회사 설립, 건축 인허가, 소액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법적 분쟁 해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균 86.2 점을 받음. 이는 조사 대상 190 개국 중 2 위에 해당하는 기록. (1 위는 86.8 점의 뉴질랜드이며, 한국은 84.0 점으로 5 위)
- 싱가포르는 이 평가에서 2011 ~2014 년 4 년 연속 1 위를 하다 2015 년 3 위로 잠시 밀려났으며, 2016 년부터 줄곧 2 위 자리를 지킨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 친화적인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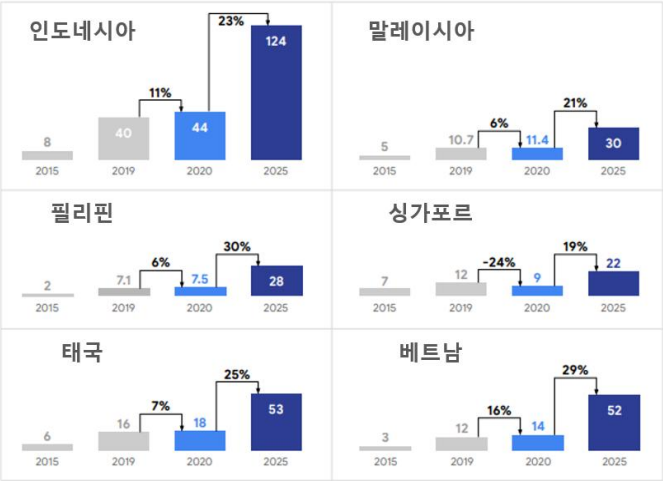
|그림 1| 싱가포르 기업 환경 평가 10개 부문별 국가 순위 | 출처: 세계은행, 2020)

- 올해 3 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84 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엔젤 네트워크 등의 중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3,600 개 이상의 테크 스타트업이 자리 잡고 있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스타트업 단지로 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 스타트업 정보 분석 업체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17 위를 차지.
- 1 위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차지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이징이 4 위 상하이가 8 위, 일본 도쿄가 15 위에 이름을 올림. 서울은 20 위로 상위 20 위권에 새롭게 진입.
- 싱가포르는 매년 14 억 달러[1](1 조 6,000 억 원)의 신규 펀딩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는 210 억 달러(23 조 7,000 억 원) 규모로 글로벌 평균인 105 억 달러(11 조 9,000 억 원)를 크게 상회.
- 싱가포르는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스트라이프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에 따르면 글로벌 회사의 59%가 싱가포르에 지역 본사를 두고 있음.
- 또 금융 회사의 아시아 지역 본사 다수가 싱가포르에 있음. 싱가포르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재 영입, 투자 유치 등 스타트업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

1) 2021년 6월 18일 달러·원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기준. (1달러 = 1,132.00원)

- 이런 기업 친화적 분위기 덕분에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와 교류가 얼마나 활발한 지를 평가하는 '연결성'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실리콘 밸리에 뒤지지 않을 만큼 유능한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난해 구글, 테마섹, 베인&컴퍼니가 발간한 'e-코노미 SEA 2020' 에 따르면, 2015 년 320 억 달러(36 조 2,000 억 원) 규모였던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가 2019 년에 1,000 억 달러(113 조 원), 2020 년에 1,050 억 달러(118 조 8,000 억 원)로 급성장함. 2025 년에는 3,090 억 달러(349 조 6,00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동남아시아는 2019 년 인터넷 인구가 3 억 6,000 만 명이었으며, 지난해 4,000 만 명이 새로 유입되어 총 4 억 명에 이름.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GMV, US$10억)



|그림 2|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 출처: 구글, 2020)

- 지난해 싱가포르는 -2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인접 개도국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각각 11%, 16%의 두 자릿수 성장을 보임.
- 싱가포르의 스타트업은 태생적으로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 때문에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인접 국가로의 진출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2. 정부 주요 지원 정책

-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3 분의 1에 불과한 면적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를 가진 도시 국가. 좁은 국토와 인구 고밀도, 빈약한 자원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해왔음. 2014 년에는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을 국가 비전으로 삼으면서 첨단 ICT 기술을 국가적 단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빠르게 성장 중.
- 또 2006 년부터 5 개년 계획인 RIE 플랜((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Plan)을 발표하고 있음. 2016 년에 발표한 'RIE 2020 플랜'에서는 2020 년까지 총 190 억 달러(21 조 5,000 억 원)를 연구, 혁신, 개발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250 개 스타트업 지원 목표는 2019 년에 294 개로 초과 달성함.
- 이외에도 자국의 테크 기업을 키워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도 장려하기 위해 창업 비자인 엔터패스(Entrepass)를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내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게 유효 기간 2 년의 비자를 제공함.

- 싱가포르 정부는 국영 투자사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를 통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고 벤처 캐피털[2]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중.
- 이에 따라 2017 년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69%가 정부 계획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2010 년의 19%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8 월 17 일 '스타트업 SG 프로그램' 강화를 명목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스타트업 육성에 최대 1 억 5,000 만 싱가포르 달러[3](1,260 억 원)를 배정함. 이는 코로나 19 라는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것임.
- 싱가포르는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55 억 달러(6 조 2,000 억 원)의 투자를 유치함. 이는 2019 년의 85 억 달러(9 조 5,900 억 원)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스타트업 시장의 성장에 대한 여전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음.

3. 주요 창업 지원 기관

- 싱가포르는 다수의 창업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인 기관이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SG, Enterprise Singapore)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전 단계부터 상용화까지 성장 단계별로 정책을 운영 중.
-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SG)는 지난해 8 월 '스타트업 SG 파운더 벤처 빌딩(SG Founder Venture Building)'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3 개월 동안 스타트업 창업 교육을 하고 있음. 현재까지 300 명 이상이 참가 .
-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마케팅, 자금 조달 등을 학습하는 한편, 업계 베테랑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잠재 고객에 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초기 시장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난양 공과대학교(NT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SU,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경영대학(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SUTD,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SUSS,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등 유수의 대학교와 협력해 진행 중.
- 현지의 대학들은 공학, 기술, 기타 과학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중.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학의 숫자가 적은 탓에, 싱가포르 신생 스타트업들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외국에서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SME 센터는 스타트업 네트워크로 1:1 비즈니스 자문,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2 만 5,000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또 5 개 무역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싱가포르 전역에 12 개의 SME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2) 벤처 캐피털(VC, Venture Capital)은 경영 기반이 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 기관.

3) 2021년 6월 18일 싱가포르 달러·원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기준. (1 싱가포르 달러 = 843.74원)

순번	기관명	사업명	주요 지원 내용
1	Enterprise Singapore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Enterprise Singapore)	스타트업 SG 파운더	3 개월 벤처 빌딩 프로그램으로 AMP 를 통한 자금 지원 적격성 심사
		SME 센터	스타트업 자문 서비스로 비즈니스 교육
		PACT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70%의 비용 지원
		스케일업 SG	스케일업을 위한 12~18 개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
		스타트업 SG	기술 생태계 내의 업계 파트너, 투자자와 네트워크 지원,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네트워크
2	IMDA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 (IMDA)	SG:D SPARK	정보통신 미디어 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채용 지원
		PIXEL	One-North 에 위치한 2 만 5,000평방미터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 제공
		Accreditation @SG Digital	정부 기관 및 대기업과의 계약 수주를 통한 혁신 기술 기업의 성장 지원
3	ace action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 ACE (Action Community Entrepreneurship)	비에이스캠프 (BACECamp)	8 일간의 멘토링 및 학습 프로그램
		글로벌 레디 탤런트	대학생 대상 해외 인턴십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최대 70%의 자금 지원

|표 1| 싱가포르 주요 창업 지원 정책 기관 및 사업명 | 출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2021년 6월)

2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업계 동향

1. 주요 스타트업 이슈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벤처 캐피털(VC), 사모펀드의 최대 투자 시장이며, 2014 년 이후 아세안 지역에서 발생한 VC 거래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해 싱가포르는 코로나 19 로 인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소비가 제한되었으나, 그럼에도 200 개 이상의 스타트업 관련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30 억 달러(3 조 3,800 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짐.
- 싱가포르의 R&D 투자 금액은 1991 년 8 억 달러(9,000 억 원) 규모에서 2017 년 91 억 달러(10 조 3,000 억 원)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10%의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딥 테크[4] 관련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최근 싱가포르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부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블록체인 부문 세계 4 위, 핀테크 부문 세계 5 위를 기록함.
- 또 가상 화폐 분야에서 2018 년 코인 공개(ICO) 규모 세계 3 위를 차지했으며, 2019 년 STO(증권형 토큰 공개, Security Token Offering) 세계 4 위에 오르며, 세계 가상 화폐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 중.

4) 딥 테크놀로지(Deep Technology)의 준말로 과학적 혹은 공학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을 일컬으며, 주로 기술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와의 접점을 찾는 것이 아닌 그 밑바탕을 구성하는 기저 기술로 첨단 소재, 인공 지능, 생명공학, 블록체인, 포토닉스, 로봇 공학, 나노기술, 양자 컴퓨터 등이 포함됨.

-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현재 핀테크 허브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중. 지난해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핀테크 기업의 40% 이상인 약 1,000 개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5]를 통해 번거로운 라이선스 규정을 통과하지 않고도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 세계 최대 규모 핀테크 행사인 '핀테크 페스티벌(FinTech Festival)'은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주최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음. 싱가포르 통화청은 핀테크 부문 개발을 위해 향후 5 년간 최대 2 억 2,500 만 달러(2,540 억 원)를 배정함.
- 싱가포르 핀테크 연합(SFA, Singapore FinTech Association)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지난해 핀테크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3 억 4,600 만 달러(3,904 억 원)로, 이는 아시아 전체 투자 금액인 55 억 3 천만 달러(6 조 2,406 억 원)의 6.2%에 해당.
- 또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동남아시아 핀테크 시장 투자 금액의 65%를 유치해 압도적 1 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 위 인도네시아가 유치한 금액의 약 4 배에 달함.
- 핀테크 하위 부문으로는 지급 및 송금 회사가 23%, 자산 관리 및 자본 시장 핀테크가 22%를 차지함.

5)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주는 제도.

2. 주요 스타트업 리스트

- 싱가포르는 현재까지 9 개의 유니콘[6]을 배출했으며, 특히 동남아 최초의 데카콘(Decacorn, 기업 가치가 100 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인 그랩의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음.

순번	업체 로고	서비스명	사업분야	설립일	누적 투자 규모
1	Grab	**그랩** (Grab)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플랫폼	2013.06	91 억 달러 (시리즈 G)
2	LAZ	**라자다** (Lazada)	온라인 쇼핑몰	2014.02	47 억 달러 (시리즈 E)
3	sea	**씨 그룹** (Sea Group)	게임, 이커머스, 디지털 금융	2009.05	27 억 달러 (시리즈 G)
4	trax	**트랙스** (Trax)	유통용 이미지 인식 솔루션	2010.11	3.869 억 달러 (시리즈 D)
5	CARRO	**캐로** (Carro)	자동차 거래 플랫폼	2015.06	3 억 6,900 만 달러 (시리즈 C)
6	patsnap	**팻스냅** (Patsnap)	IP, R&D 인텔리전스 플랫폼	2007.09	3 억 달러 (시리즈 E)
7		**비고** (Bigo)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앱	2014.09	2 억 7,200 만 달러 (시리즈 B)
8	Acronis	**애크로니스** (Acronis)	사이버 보안 솔루션	2004.11	2 억 5,000 만 달러 (시리즈 B)
9		**레이저** (Razer)	게이밍 기어	2003.12	1억 7,500 만 달러 (시리즈 C)

|표 2| 싱가포르 유니콘 기업 목록 | 출처: STARTUP SG, 2021년 6월)

-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가 운영 중인 스타트업 정보 사이트 STARTUP SG에 따르면, 올해 6 월 현재 스타트업 3,448 개, 투자사 632 개,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7] 199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활발한 투자 덕에 차기 유니콘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설립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최대의 모바일 차량 호출(Ride-hailing) 플랫폼인 그랩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활용한 음식 배달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에서 서비스 제공 중. 올해 5 월 기준으로 그랩의 기업 가치는 396 억 달러(41 조 7,523 억 원)에 달함.
- 라자다는 5 억 6,000 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6 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뉴욕 거래소에도 상장.
- 씨 그룹은 2009 년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가레나(Garena)로 시작했으며, 2017 년 나스닥에 상장했음. 가레나는 인도네시아의 국민 PC 게임 〈포인트 블랭크(Point Blank)〉를 퍼블리싱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프리파이어(FreeFire)〉는 일일 활성화 유저 1 억 명을 기록 중. 씨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Shopee)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에서 서비스 중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잡고 있음.

6) 창업 10년 이내에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달성한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 데카콘 기준은 100억 달러.

7)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업무 공간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언론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모데이를 개최해 상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발굴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단체.

- 트랙스는 소매업계를 위한 이미지 인식 솔루션으로 판매 실적 개선을 위한 매장 내 데이터를 제공하며 유니레버(Unilever), 어찬(Auchan) 등의 글로벌 유통 기업과 협업 중.
- 캐로는 2017 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3 억 5,000 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유치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음.
- 팻스냅은 세계 50 개국 1 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에서부터 제품 상용화 과정에 이르는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비고는 비고라이브(BIGO Live), 라이키(likee), 아이엠오(im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150 여 국가에서 월간 4 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 중.
- 애크로니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로 안전한 백업, 보안, 복구 및 파일 동기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
- 레이저는 게이머를 위한 고품질의 PC 용 하드웨어 장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한 e 월렛 서비스 'Razer zGold'를 제공하는 회사로, 세계 최대 게이밍 관련 기기 업체로 성장 중.
- 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지난해 GTI 미디어 싱가포르가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2%가 재학 중 혹은 졸업 직후에 스타트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랩, 마이크론, 삼성, 쇼피 등으로, 기술 기반의 회사에 대한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짐.

심층 인터뷰

셀인올(SELLinALL)
판매지원팀장, 재키 파라스(Zaky Farras)

INTERVIEW NOTE

인터뷰 취지

싱가포르 스타트업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 문화와 정부의 지원 상황, 그리고 현지의 인식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대상자 소개

성 명 재키 파라스(Zaky Farras)

소 속 판매자 성장 지원팀

업 무
- 고객 영업 및 관리
- 마켓 플레이스 운영 지원
- 팀원 관리

부록 기업 정보 요약

기업명	셀인올 (SELLinALL)
설립연도	2014년
주요사업	다중 채널 e커머스 지원 사업
주소	09-07, AZ @ Paya Lebar 140, Paya Lebar Rd, Singapore 409015
웹사이트	http://www.sellinall.com

항목	상세 내용
형태	▸ 비상장 기업
직원 수	▸ 150 명 규모
진출 국가	▸ 싱가포르(본사),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가이아나
서비스 특징	▸ 다양한 e 커머스를 하나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내에 통합해 주문, 재고, 보고를 단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서비스	▸ 대시보드 시스템 (재고 관리, 주문 관리, 장부 관리, 창고 관리) ▸ 브랜드 스토어 운영 대행 (마켓 플레이스 개설, 디자인, 제품 카탈로그 제작, 프로모션 등) ▸ 퍼포먼스 마케팅 (소셜미디어, SEO, 콘텐츠 제작)
지원 e 커머스 목록	▸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 라자다(LAZADA), 큐텐(Qoo10), 엣지(etsy), 11 번가(11street), 마젠토(Magento), 쇼피파이(Shopify), 페이스북(Facebook), 핀터레스트(Pinterest)
주요 고객	▸ 옴론(Omron), 아웃도어벤처(Outdoor Venture), 멜리사(Melissa), H2Hub, 범프 바자르(Bump Bazaar)

출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 자체 조사, 2021년 6월

INTERVIEW Q & A

본인과 회사 소개

Q 자기 소개를 해달라

A 셀인올(SELLinALL)에서 2 년 반째 일을 하고 있는 자키 파라스(Zaky Farras)이며, 지역 판매자 성장 지원팀 리더를 맡고 있다.

Q 회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A 셀인올은 브랜드사와 중간 유통 거래상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에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사이트와 연동되는 통합 관리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웹 소프트웨어가 주 분야다.

A 전자 상거래 판매자들이 주요 고객이며, 대시보드에서 재고 관리와 주문 관리를 원활하게 동기화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물류에서 마켓플레이스에 이르는 통합 파트너 체인, 즉 쇼피, 라자다, 토코페디아(Tokopedia), JD, 큐 10(Qoo10), 아마존, 엣지(etsy), 이베이(eBay)와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지도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SNS 운영, 온라인 프로모션 마케팅 서비스 등도 하고 있다.

Q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A 마켓 플레이스 계정을 소유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게 나의 주 역할이다. 판매자들이 마켓 플레이스를 개설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돕고, 판매 계획을 수립해 일간 단위로 운영 실적을 관리한다. 또 고객사를 관리하는 팀원들을 교육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Q 회사의 주요 고객은 어떤 분들인지?

A 주요 고객은 브랜드 소유자(Brand owner) 혹은 유통 판매상(Distributor)이다. 대체로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SMEs)에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운영 관리 서비스가 아직 미흡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주 공략 대상이다.

Q 고객들이 셀인올을 찾는 이유는?

A 유통 판매자가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켓 플레이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인적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쉽지 않은 작업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 직구와 신규 국가 진출을 고려한다면 회사 내부 시스템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A 우리는 여러 마켓 플레이스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있는 사무실을 통해 국가별 진출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통합 시스템으로 다양한 마켓 플레이스 채널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회사와 시장 현황

Q 주목받는 스타트업인데, 올해 계획은?

A 설립 7 년 차여서 이제 시장에서 사업성은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목표는 더 많은 대형 브랜드 판매자를 확보하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머신 러닝을 통합할 계획이다. 방대한 판매량을 분석해 얻은 시장 정보를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 서비스 성장을 위해서는 각 고객사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사의 마켓 플레이스 트랙픽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올해는 마켓 플레이스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SNS 홍보를 통해 외부 트래픽을 유인하는 마케팅도 병행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에서 다량의 트래픽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Q 코로나 19 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A 코로나 19 로 인해 많은 소매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지난해 셀인올 고객사들의 온라인 판매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판매량 감소를 만회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 종식이 아직은 요원한 만큼, 많은 고객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문화와 주력 업종

Q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기업 문화가 궁금하다

A 우리 회사 창업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의 베테랑들이다. 미국 스타트업 문화를 계승해 굉장히 유연하고 평등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의 브레인 스토밍에 개방적이며, 아이디어의 공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출 목표 등은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만, 그외 임직원 간의 소통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다. 이는 다른 싱가포르 스타트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Q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주 업종은?

A 서비스 산업이 주력이다. 특히 전자 상거래, 핀테크, 물류,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관련 업종이 많은 편이다. 싱가포르에는 이미 비즈니스 성숙기에 도달한 대규모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근의 동남아 시장에 안착해, 벤처 캐피털의 자본 투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Q 정부의 지원은 어떤 편인가?

A 싱가포르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국가다. 셀인올도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다양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언제든 쉽게 문의할 수 있다.

A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여서 주변 국가 진출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대하면서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Q 싱가포르 스타트업은 구직자에게 어떤 매력이 있나?

A 싱가포르의 주요 스타트업들은 다국적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가 목표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지점을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A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허브인 싱가포르는 스타트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여서, 빠른 승진과 후한 인센티브, 그리고 글로벌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Q 5 년 내 싱가포르 스타트업 시장에서 예상되는 위기와 기회는?

A 코로나 19 가 가장 큰 변수다. 현재 기업 대부분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어, 시장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또 정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빠른 의사 결정이 장점이지만, 소규모 자본의 한계로 인해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지금의 팬데믹 기간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가장 큰 혜택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A 반면 오프라인 시장의 위축으로 온라인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으려면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스타트업이 사업 실패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김영수 센터장	+62-21-2256-2396	splyskim@kocca.kr
주윤지 주임	+62-21-2256-2396	juliajoo@kocca.kr

싱가포르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3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김영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장 주윤지 주임
집필자	신진세 대표 (PT. EPIN) 이수연 과장 (PT. EPIN)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1년 10월 21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